

# 다단계업체 증가... 공제조합 가입 여부 가려야

## 법개정 이후 지난해 4분기 112개 성업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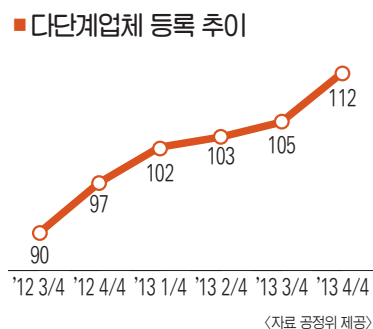
### 계약해지 업체엔 소비자 보상 못받아 '주의'

가정 형편상 휴학을 결심한 대학생 박모(26)씨는 최근 서울에 있는 친구로부터 솔직한 제안을 받았다. 자신이 일하는 업체가 있는데 올라와서 교육을 받으면 취업할 수 있고 단기간에 돈도 벌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미심쩍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확인해 보니 등록되어 있지 않은 다단계판매업체였다.

최근 졸업·입학철을 맞아 취업을 미끼로 대학생을 판매원으로 모집하는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와 고소득을 보장한다며 판매원을 모집하는

외국계 온라인 불법 다단계업체들이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한 주의 경보가 발령됐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휴먼리빙, 한국에바다, 이바인코리아, 웰글로벌, 신원해피니스 등 5개 다단계판매업체는 최근 공제조합과의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소비자가 청약철회나 환불거부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에 따른 소비



- 계약해지 5개 업체
- 휴먼리빙
  - 이바인코리아
  - 한국에바다
  - 웰글로벌
  - 신원해피니스

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06년 이후 분기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

요 정보 변동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업체는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새로 등록된 업체는 모두 직접판매공제조합·특수판매공제조합과 소비자 피해 보상계약을 체결해 공제조합에 가입된 다단계판매업자의 판매원과 소비자는 청약철회, 환불거부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제조합과 계약이 해지된 5곳과 거래한 소비자 등은 앞으로 청약철회 및 환불거부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거래할 때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말 현재 영업중인 다단계 업체는 112개로 지난해 3분기 말(105개)보다 7곳 늘어났다. 2012년 3

분기말 90개에서 계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지난 2012년 8월 방문판매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상당수 방문판매업체가 다단계판매업체로 전환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신규 등록한 11개사는 서원생활건강, 지엔에스하이넷, 하모니에이치디, 아리고라이프, 데이머스, 도데라코리아, 비즈인터내셔널 코리아, 라이플, 카성은 더위를 피하는 상품에 더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더위를 피하는 상품에 더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더위를 피하는 상품에 더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4분기 중 다단계판매업체들의 주요 변동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정보공개-사업자정보-다단계판매사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농심, 새우깡 가격 10% 인상

스낵류·즉석밥도 7.5%  
파리바게뜨 7.3% 올려

가공식품 가격이 줄줄이 오름세다. 농심은 6일 새우깡을 비롯한 스낵류와 즉석밥 등 제품류 가격을 평균 7.5%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우깡은 기존 1000원에서 1100원으로 10% 오르고, 포스틱·양파링·자갈치 등도 8.3% 상향 조정됐다.

즉석밥은 평균 9.9%, 웰치주스도 8.2% 가격이 올랐다. 농심은 1년 6개월 전인 2012년 9월에도 새우깡을 비롯한 주요 제품 가격을 50~100원 인상했다.

회사 관계자는 "그간 정부의 물가정책에 부응해 가격 인상을 자제해 왔지만 물류비와 판매관리비 상승으

로 인상이 불가피했다"며 "다만 칩포테토 등 6개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을 동결해 인상에 따른 매출 증가는 1%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대부분 과자·음료 가격은 이미 대부분 오르 상태다. 전날에는 음료업계 1위인 롯데칠성음료가 칠성사이다를 비롯해 14개 제품 가격을 평균 6.5% 인상했고, 지난해 연말엔 코카콜라가 제품 출고가를 평균 6.5% 올렸다.

파리바게뜨도 지난달 15일부터 우유식빵을 비롯한 193개 품목의 제품 가격을 평균 7.3% 인상했다. 앞서 지난해 연말엔 오리온이 초코파이 가격을 20%나 올렸고, 해태제과도 예외 없이 20% 인상했다. 롯데제과 역시 '빼빼로' 중량을 늘리며 가격을 20% 높게 책정했고, 몽셀 등 9종 가격도 평균 11.1% 상향 조정했다. /연합뉴스



오리고기 안심하고 드세요

전남농협(본부장 박중수)은 6일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 농산물 유통센터 1층 매장에서 오리고기 소비 촉진을 위한 시식코너를 마련해 고객들과 함께 오리고기를 시식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기관 매수세 유입 코스피 1900선 회복

## 16.57P 오른 1907 마감

코스피가 기관 매수에 힘입어 이틀째 상승하며 1900선을 회복했다. 6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6.57포인트(0.88%) 높은 1907.89로 장을 마감했다.

상승세의 주된 원인은 그간 지수를 끌어내렸던 외국인의 매도세가 약화된 반면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

됐기 때문이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이날 모두 1164억원을 순매도해 4거래일 연속 '팔자'를 이어갔다.

최근 '사자'로 일관하던 개인도 4거래일만에 순매도로 돌아섰지만, 기관이 홀로 1944억원 어치를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큰 폭으로 끌어올렸다. 기관 중에선 투신(787억원)과 보험(497억원), 사모펀드(471억원),

연기금(198억원) 등의 순매수 규모가 컸다. 업종지수는 대부분 올랐다. 서비스업(2.08%) 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전기전자(1.87%), 의료정밀(1.84%), 화학(1.03%), 기계(0.94%), 제조업(0.91%), 전기기업(0.74%), 건설업(0.67%), 음식료품(0.64%), 유통업(0.49%), 철강(0.41%) 등이 뒤를 따랐다.

코스닥 지수는 4.25포인트(0.84%) 오른 509.87로 마감했다. 코스닥시장은 12개 종목에서 3만 9400주, 2억4207만원이 거래됐다.

아시아 증시는 일본 등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올랐다. 일본 닛케이평균주가는 전날보다 25.26포인트(0.18%) 하락한 1만4155.12. 토픽스지수는 0.27포인트(0.02%) 내린 1162.37로 거래를 마쳤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는 전일 증가보다 1.10원(0.10%) 오른 달러당 1,07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김대성기자 bigkim@연합뉴스

# 남 여름, 겨울 지갑 더 연다

## 지마켓, 계절쇼핑 분석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사이트 지마켓은 계절상품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여성은 추위를 막는 상품에 지갑을 여는 반면, 남성은 더위를 피하는 상품을 더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밝혔다.

올해 들어 대표 겨울 패션 상품인 재킷과 코트 판매량의 경우 여성용은 127% 증가했고, 남성용은 29% 증가하는데 그쳤다. 장갑의 여성 구매량이 37% 늘었으나 남성 구매 증가율은 5%에 불과했다.

당시 가장 인기를 끈 난방 제품 온풍기의 경우 여성의 경우 전년대비 구매량이 5배(421%) 가까이 급증한 반면 남성 구매 증가율은 88%에 머물렀다.

반면 더운 날 여름상품 구매에는 남자가 더 적극성을 띠었다.

지난해 여름 가장 더웠던 8월 12일(서울 평균기온 29.3도)의 여름상품 판매량을 전주 같은 요일(8월 5일)과 비교한 결과 에어컨 전체 구매량은 남성이 60% 증가한 반면 여성은 47% 증가에 그쳤다. /연합뉴스

# 내달부터 항공기 이착륙때도 전자기기 사용

이르면 3월부터 항공기 승객은 비행기모드 설정한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전자기기를 항공기 이착륙을 포함한 모든 비행단계에서 쓸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정부 지침을 국내 항공사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태블릿 컴퓨터, 전자책 등 휴대용 전자기기의 무선간섭 영향을 자체 평가한 다음 이

행 절차를 세우고 정부 승인을 받아 전자기기 사용을 허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반드시 비행기모드로 설정한 상태에서만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음성통화는 여전히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부피가 큰 노트북 컴퓨터 등은 이착륙할 때 선반이나 좌석 아래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aT-한국철도공사, 음식관광활성화 MOU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김재수)는 6일 코레일 본사 서울 사옥에서 한국철도공사와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사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철도관광 상품과 연계한 전통식품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농축수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aT는 지난해 8월 농림축산식품부

와 코레일과 함께 서울역 공장에서 '철길따라 흐르는 도농상생 한마당 페스티벌'을 개최했으며 10월~12월에는 '관광열차 연계 전통식품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전통식품과 철도관광을 융합한 6차 산업 모델을 구축했다.

한편, aT는 민간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외국인의 눈높이에 맞춘 음식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김대성기자 bigkim@

www.guemyong.co.kr

이웃 갈등 원인 해결!!  
충간소음 방지 바닥재  
오리지널 영국 제품  
인스타레이

국내최초 경량, 중량 충격음 기준 통과

충간소음 전용 바닥재 InstaLay®

주목시공기준: 경량충격음 58dB이하, 중량충격음 50dB이하, 수인한도기준: 주간 40dB이하, 야간 35dB이하

뛰어난 열전도성, 충간 중량 충격음 방지, 다양한 바닥재 연출, 알맞은 쿠션기능으로 피로방지 및 내구성 보장되는 새로운 개념의 신기술 - 바닥재 시스템

NAVER 충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바닥재

강화마루, 온돌마루, 모노층, 데코타일(직사각형), 데코타일(정사각형)

전국 시,군,구지역 대리점 모집  
문의전화 062-575-9082

(주)금용건설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출연 (백명숙 이사, 유영선 원장출연)

결혼 정보

빠른 성사! 결혼성사사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다년제직 [광주서석초등학교출연, 전주고등학교출연]

성사율 호남1위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결혼정보서비스업체

추천 회원		재혼	
<p>♂ 초혼</p> <p>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p> <p>판사, 검사, 변리사, 회계사 28~47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p> <p>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p> <p>은행원, 연구원 29~49세</p> <p>대(중, 소)기업 직원 27~48세</p> <p>사업가, 자영업 29~39세</p> <p>세무사, 연구원 29~48세</p> <p>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p> <p>교사, 교수 28~49세</p>	<p>♀ 초혼</p> <p>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p> <p>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p> <p>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p> <p>의사, 약사, 교사 25~39세</p> <p>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p> <p>간호사, 은행원 26~47세</p> <p>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p> <p>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p> <p>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p>	<p>♂ 재혼</p> <p>의사, 변호사 32~65세</p> <p>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p> <p>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p> <p>대기업 간부 36~59세</p> <p>회사원, 자영업 33~67세</p> <p>'무술산 여성' 희망 31~58세</p>	<p>♀ 재혼</p> <p>VIP 희망 여성 29~53세</p> <p>학원(음악)원장, 강사 27~63세</p> <p>공무원, 교사 32~58세</p> <p>간호사, 회사원 29~48세</p> <p>자영업, 가사 35~64세</p> <p>'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p>

강남역 7번출구70m 하나은행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전주서석초) (063) 275-7766

임페리얼 클럽